

다산포럼

문학에서 표절이란 무엇인가? - 신경숙 사태를 보는 한 시각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도 보인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대체 문학에서 표절이 무엇이며 과연 신경숙의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의 표절작인가 하는 의문이다. '우국'을 모른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표절작가로 단죄되는 흐름이 워낙 거센 데다, 출판사가 사과 성명을 내고 작가도 결국 시인한 셈인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가 이번 기회에 읽어본 두 작품은 생판 서로 다른 작품이다. 몇몇 문장에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작품 전체의 내용, 사고, 감수성, 문체 등 문학의 중심요소들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의 환란에 처한 두 남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주제 자체가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들 뿐이다. '우국'은 남자가 주도하고 '전설'은 여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우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군국주의 국가이념을 교육하고 여자 또한 기쁘게 따르나 '전설'의 여자는 사회의 요구와는 무관한 그녀만의 세계 속에 마치 '사과나무'처럼

서 있다. '우국'이 남자가 활복자살하고 여자가 뒤따라 자결하는 참혹한 광경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치중하는 동물적인 소설이라면, '전설'은 떠난 남을 기다리며 늘어가는 한 여자의 삶을 잔잔하게 그린 식물적인 소설이다. 한마디로 미시마는 미시마고 신경숙은 신경숙인 것이다.

두 남녀의 신혼생활을 다룬 부분에서 신경숙의 소설에는 미시마의 문장을 변용하여 쓴 듯한 대목이 두어 군데 있다. 아무리 작더라도 표절 혐의는 엄연한데, 작가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니 독자로서는 그 말을 믿거나 거짓으로 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후자라면 다른 여자가 없겠지만 믿는 경우에는 습작기의 훈련 과정에서 익힌 표현들이 기억의 창고 속에 머물러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 해도 부주의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경숙이 표절작가가 되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시인은 흠쳐서 더 낮거나 다른 무엇을 만든다. 표절 논란이 있을 때마다 흔히 인용되

는 것이 영국시인 T. S. 엘리엇의 "미숙한 시인은 흉내 내지만 성숙한 시인은 흡친다"는 문구다. 표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든가 선대 작가들이 이룩해 놓은 언어의 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엘리엇은 이어서 말한다. "나쁜 시인은 흡친 것을 훼손하고 좋은 시인은 더 낮거나 최소한 다른 무엇으로 만든다. 좋은 시인은 흡친 것을 원래와는 판이한 자기만의 전체적인 감정 속에 녹여내지만 나쁜 시인은 버섯기게 엮어놓는다."

작가가 미시마의 작품을 읽었던 일지 않았든, 그 사실을 기억하든 못 하든, '우국'의 일부 문장이 '전설'에서 전혀 다른 감정에 결합되어 빛나고 있다면 작가는 할 일을 한 것이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설'에서 신경숙은 자신이 엘리엇이 말하는 '좋은 시인'임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출판사는 이 작품을 작품집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문학에서 표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까닭이다.

社說

U대회 폐막...광주 브랜드 세계에 알렸다

메르스도 태풍도 대회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다.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취이러도 선대 작가들이 이룩해 놓은 언어의 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엘리엇은 이어서 말한다. "나쁜 시인은 흡친 것을 훼손하고 좋은 시인은 더 낮거나 최소한 다른 무엇으로 만든다. 좋은 시인은 흡친 것을 원래와는 판이한 자기만의 전체적인 감정 속에 녹여내지만 나쁜 시인은 버섯기게 엮어놓는다."

작가가 미시마의 작품을 읽었던 일지 않았든, 그 사실을 기억하든 못 하든, '우국'의 일부 문장이 '전설'에서 전혀 다른 감정에 결합되어 빛나고 있다면 작가는 할 일을 한 것이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설'에서 신경숙은 자신이 엘리엇이 말하는 '좋은 시인'임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출판사는 이 작품을 작품집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문학에서 표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까닭이다.

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물은 설문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광주를 '친절' '우호' '쾌적' '조화' 등의 단어로 표현했다. 최고의 찬사인 셈이다. "외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서 친근감을 느꼈다." "포용력 있는 문화가 인상적이다." "광주의 거리와 시설들도 모두 깨끗해서 놀랐다." 한결같이 칭찬 일색이다.

광주U대회는 오늘 오후 7시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이번 대회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시민들은 광주를 방문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광주, 그리고 높은 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열전은 막을 내렸지만 광주와 광주정신은 세계 젊은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이다.

보복운전 근절책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

지난 7일 밤 광산구 신장동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커졌는데도 앞에 있던 화물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라던 승용차 운전자가 욕설을 하더니 앞서 나갔다. 이에 격분한 화물차 운전자는 승용차를 13km/h 쫓아가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해 결국 입건됐다. 지난 3월에는 상대 차량을 쫓아가며 순전에서 여수까지 30분간 폭언 등의 행패를 계속한 사건도 있었다.

광주에서 최근 한 달 사이 보복운전 피해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다. 보복운전은 운전자들끼리 휘둘러는 일도 있다. 급기가 광주·전남경찰청이 다음달 9일 일까지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보

복운전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기로 한 뒤 나온 조치다. '로드레이지'(Road Rage)라 불리는 도로 위 난폭 행동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가해자에게 운전면허 박탈 등 행정처분과 벌칙·경제적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지만 다행히 최근 피해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이전에 운전자들이 감정을 자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서로 '속'하기 전에 비상용 깜빡이를 켜거나 손을 들어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다 보면 시비가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운전 중 상황에 맞는 미안함과 고마움 표시도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

NGO 칼럼

'놀이터를 지키자'



박수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복지사업팀장

한다.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 놀이터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업스트레스'라고 한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사회의 경쟁 시스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습에 매진한다. 놀이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아동의 학습과 놀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아이들의 삶과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회적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정부는 올해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만족도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표와 놀이려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아동 놀 권리 헌장'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학업과 놀이·여가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가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놀이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실질적인 놀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 5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5개 조항이 담겨 있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 헌장 역시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선언들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안전지역에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2차례의 유예

기간을 두고 7년 만에 시행되었다. 그동안 어른들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일부 대형 브랜드 아파트는 페쇄 이후에 신속히 재검사를 받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영세, 소형, 공공주택의 민간놀이터들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 놀이터들은 시설 보수에 쓸 예산이 없다. 방수와 외장 페인트 공사비용도 확보하지 못해 놀이터 보수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시행한 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빼앗아 버린 셈이다.

아이들의 '놀 권리' 실현에 있어, 구호가 아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폐쇄된 놀이터 가운데 저소득, 영세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마저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한다.

기 고

미술이 있는 삶과 광주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contemporary art)인지 사전마다 말이 다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세기말의 인상주의를 현대미술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미술의 개념이 없는 일반인으로서의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된 1995년이 현대미술을 각인시킨 기념비적 해로 인식될 수 있겠다. 한국에 실질적 기능을 하는 미술관이라고는 과천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 한 곳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난생처음 보는 현대미술이 설치미술 작품인 '맥주병 위에 얹혀놓은 나룻배'라니, 시골에서 손잡고 올라온 노부부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일반인이 현대미술에 대해 느끼는 난해함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시간차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많은 미술관들이 생겼고, 주5일제가 시행되는 등 많은 문화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인이 현대미술을 관

람하고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생활문화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선진국처럼 미술문화를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한 세대라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적 성숙이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둘째는 미술공급자의 구시대적 전시전략 때문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구분한 전시의 종류는 두 가지다. 공급자 중심의 전시와 소비자 중심의 전시. 공급자 중심의 전시는 일방적이라는 특징,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전시는 소통이라는 특징을 각각 지니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온 공급자 중심의 전시는 소비자의 외면을 부르려고, 시민과 현대미술과의 거리를 멀게 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시는 안 된다. 전시의 담보성이 느껴져야 하고, 관람객이 전체 전시작품 관람을 통해 주어진 주제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대 미술이 소비자에게 다가

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 불리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미술 분야의 중요성이 큰 도시며, 현대미술이 도시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도시다. 그러나 구상과 현실의 괴리만큼 많은 시간을 만들 수는 없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시민들이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언컨대, 현대미술을 쉽게 보여주는 전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람객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전시를 보여줄 때 현대미술이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현대미술이 쉬워지면, 작가는 미술관 관람객 수가 늘고 크기는 광주의 문화적 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다. 누군가의 구호를 차용하여 표현하자면 '미술이 있는 삶'이 광주의 문화가 될 때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리라고 믿는다.

미아발생 사전 예방으로 즐거운 피서철 되길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을 찾고 있다. 인파로 북적이는 곳은 대개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자녀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순식간에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미아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항상 자녀한테서 주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이름과 부모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주지시키고, 유아나 장애아에게는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미아 예방용 목걸이나 팔찌 등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파가 많은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 될 수 있으면 특징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색계통의 밝은 옷을 입혀 발견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행을 가기 전에 자녀의 특징이나 성향, 신체적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미야방지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는 것도 미아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자녀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두면 미아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부모나 미아를 발견한 사람

은 일단 아이가 있던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신속히 살펴보고 만약 찾지 못했다면에는 미아 찾기 센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미아는 부모는 물론이고 그 아이에게 미치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며 사회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매우 크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예방하여 즐거운 피서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산수동

**無 等 鼓**

세 치 혀를 사로잡는 무수한 요리를 누가 맨 처음 만들었는지 알긴 힘들 터다. 최초로 불을 사용해 고기를 굽던 석기시대부터 TV를 통해 요리법을 눈으로 보며 즐기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맛있는 음식은 주위에 넘쳐날 정도다.

하지만 '인스턴트 라면'만큼 촉박하게 뚜렷한 음식도 없을 것이다. 일본 안도모모후쿠(安藤百福·1910~2007)가 10여 년간 개발에 매달린 끝에 지난 1958년 8월 25일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이어 1971년에는 물론

**인스턴트 라면**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라면 소비량 1위는 444억 개를 먹어 치운 중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35억9000만 개로 7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라면 소비는 연간 72.8개(세계인 평균 소비량 14.3개)로 최고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자국 발명품 1위에 인스턴트 라면이 꼽혔다. 앞서 2014년에는 영국문화원이 조사한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 가운데 음식으로는 유일하게 라면이 선정되기도 했다. 언젠가 일본을 방문한다면 오사카 '인스턴트 라면 박물관'이나 '신요코하마 라면 박물관'을 찾고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   |                                  |                                    |                                    |
|---|----------------------------------|------------------------------------|------------------------------------|
| <b>光 州 日 報</b>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                                  |                                    |                                    |
| 편집국내선<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br>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br>(F A 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br>(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매체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 회 부 2200-693                   | 다 자 인 실 2200-536                   | 사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571                   | 프 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